

**문화포럼**

**부안 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제1회 부안 농협장기(조합장 김원철) 게이트볼대회가 4일 부안군 백산면 백산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관재인 부안부군수를 비롯한 최훈열 도의원, 박천호 부안군의원, 강태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유금용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부안 농협임원과 관내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부안 농협 관내(부안, 동진, 백산 주산) 5개팀 회원 80여 명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간 갈고 닦은 게이트볼 실력을 겨뤘다.

게이트볼은 생활 속 깊이 보급돼 어르신들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생활하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대회가 열린 백산면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백산면민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전천후 구장으로 신축되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추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김원철 부안 농협조합장은 "어르신들이 합한 구형소리로 열심히 경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다시 젊음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원로조합원님은 부안 농협의 초석입니다"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공공근로사업 연장 시행**

정읍시는 고용시장의 악화로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 등 취약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해오던 공공근로사업 기간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57개 사업에 74명이 참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에서 1억6천만원을 확보해 12월 18일까지 54일 간 연장하여 8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학력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해소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장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4회에 걸쳐 단계별로 연간 3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동절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사고 없이 4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장별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가진 바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집중 육성**

정읍시가 추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전통상업점포 되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신업종 확대와 대형 합인점으로 아쉽게 사라져가는 전통상업점포의 자생력을 키움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5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민속대장간 등 13개 점포를 전통상업점포로 지정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방안에 초점을 맞춰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이들 전통상업점포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점포에는 전문 컨설턴트 진단과 함께 시설개선비 지원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이 제공된다.

한편 시는 전통상업점포는 동일 업종에서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시는 2017년도 전통상업점포 지정과 관련, 이달 말까지 지역경제과(☎063.539-5602)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의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민자 유치 성공**

9월 말 현재 86.5% 성과... 여관 3, 펜션 6, 상가 1개 등 10개부지 분양 예정

정읍시의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고 있다.

시는 "일괄분양에서 개별분양으로 전환한 지 2년 여 만인 9월 현재 8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민자 유치 방식을 당초 전체 부지를 묶어서 분양하는 일괄분양 방식을 추진해오다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형 투자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4년부터 개별시설 부지별로 별도 분양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해왔다.

현재 골프장 부지와 여관, 펜션, 상가 부지 등의 소형부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돼 분양대상 면적 111만7

천551㎡ 중 96만5천589㎡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 대비 86.5%의 부지 분양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골프장조성공사가 본격 착공되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투자자 확보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돼 분양이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신정동과 용산동에 위치한 159만7천여㎡(약48만평) 부지에 정읍시 42억, 한국관광공사 440억, 민자 2천367억 등 총 3천22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펜션, 워터파크 등을 조성

하는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조성부지 일대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용산호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KTX(정읍역 하차)로 1시간30분대, 전주·광주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양호하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입지 여건을 기반으로 '휴양과 건강'을 컨셉으로 리조트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정읍시 관광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여 만에 86.5%의 민자를 유치한 것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발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해경, 태풍 '차바' 복상 주의 당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순찰 확대**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가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도 남부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해상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높은 파도에 의한 선박과 양식장 해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기상예보에 따르면 태풍 '차바'는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50m/s 강풍 반경이 350km의 중형 태풍이다. 이에 따라 부안 해경은 장기

계류방치 선박과 여객선, 유람선,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낚시객, 해수욕장 등 연안 레저객 안전을 위해 해안가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의 순찰을 확대 시행하여 출입자 안전 계도에 들어갔다.

해경은 태풍 관련 기상정보 발표될 경우 NAVTEX(해상교통문지방송)과 경보경정 등에서 항행선박에 태풍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조업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다. 또, 위험지역에 정박된 선박을 안전

지역으로 즉시 이동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각 항·포구를 중점 순찰해 계류줄이 끊어지거나 풀려 표류하는 선박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제18호 태풍이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해 1300백여척의 선박이 아무런 사고도 없도록 태풍 대비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10월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문화유산주제 강의 등 풍성**

매주 목요일 평생학습 나눔 배움터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의 계절 10월 맞아 '달맞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물들다'라는 테마로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로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10월의 첫 강연인 6일(제483회)에는 이준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를 초청하여 '백제 마루이 김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김제시 문화유산과 자연 등을 소재로 지은 한시를 바탕으로 김제의 정신과 미래 비전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13일(제484회)에는 성석제 소설가를 초청하여 '문화의 숲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주제로 다양한 저서 속 등장인물의 해학과 풍자 혹은 과장과 익살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국면을 그려내는 인문학 강의가 진행된다.

10월 20일(제485회)에는 한준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의 필요성과 배움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워야 오라 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특히, 이날은 금구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금구면 주민자치

센터 라인댄스교실의 멋진 식문화 화교연도 함께 진행된다.

10월 마지막 강연인 27일(제486회)에는 방승인 허함을 초청, '행복한 세상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랜 방송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와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에피소드 등 그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양문업 인재양성과장은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을 맞아 신선한 가을을 지평선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기쁨을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시, 전북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김제시는 정부3.0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정부3.0의 생활화와 중앙영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전라북도 정부3.0 우수사례 콘서트에서 든든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자원 순환형 시민안전케어망 구축이 전라북도 정

부3.0 우수사례로 지난 9월 30일 선정되었다. 든든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자원 순환형 시민안전케어망 구축은 최근 취약계층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에 대한 범 국가적 움직임에 선 도적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안전 사

각지대 ZERO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 안전요원으로 활동하여 내마을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주민참여형 정부3.0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자치부 주관 범정부 경진대회에 전라북도 우수사례도 참가하여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지난 3일 입암면 대흥초등학교에서 주민과 출향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입암면민의 날 및 제23회 주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 입암면민의 날 '성료'**

**면민시장 수여 및 공연과 기념식**

지난 3일 입암면 대흥초등학교에서 주민과 출향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입암면민의 날 및 제23회 주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식전공연(난타, 라인댄스)과 기념식 체육행사, 노래(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장 수여가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봉양하고 칠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이등춘씨가 효열장을, 출향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고령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율포유 대표 김영철씨가 애향장을,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유종대씨가 면민의장 공익장을 수상했다.

또 시정 발전과 민민화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석문씨와 김석철씨가 시장 감사패를 받았고 안길서, 김영순씨가 체육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면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치러진 고리걸기, 투호 등 민속경기도 펼쳐졌고 푸짐한 경품과 시상식에 즐거움을 더했다.

부대행사로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의 사진첩 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입암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면민 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신명나는 축제의 장과 지역사회 활력소가 되어, 지역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주산면민의 날 성황리 종료**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 1500여 명 참여**

제22회 주산면민의 날 기념 주산면민 삼미삼락축제가 지난 3일 주산면체육관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종회 국회의원과, 오세용 부안군의회 의장 등 내·외빈과 장종대 재경부안군항우회회장 김정락 재경주산면항우회장과 항우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삼미행사로 가마솥 밥 짓기, 블루베리 주스 만들기, 축산물 구이 코너 등이 마련됐으며 삼락행사로 풍류(난타·사물놀이 등), 민속놀이(물동이 이고 달리기·투호 등), 가요노래자랑·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폐막행사는 모든 참여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민민과 관광객이 행사로 마무리돼 축제에 참여한 모두에게 흥겨움을 안겨줬다. 이와 함께 영농법인 라이프스프라자, 주산사랑, 천지연, 징코푸드시스템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

했으며 주산면 자율방범대와 주산파출소는 교통질서 유지, 주산면역상단체에서는 각종 체험 및 시식코너를 분담·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송영일 주산면체육회 고문은 대회를 통해 "매년 단순 반복적인 화합행사만 치러 오다 지난해부터 옛 것과 새로운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소득을 높이려고 지금부터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규 부안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주산면은 귀농하기 좋고 인심이 넉넉한 고장으로 면민 모두가 오복·오강행정과 소·공·동 행정에 동참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발전 선도적인 면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 및 정신건강 캠페인**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지난 지평선 축제기간(9. 29. ~ 10. 3.) 동안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김제시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주제로 지평선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금연 가족과의 맹세라는 포스터와 스스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정신건강 척도검사

를 실시하여 가족과 함께 금연을 맹세하고 가족들의 정신건강 척도 검사를 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연이 자신과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